대기업 협력업체 10곳 중 7곳 '적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 기업 103곳 조사

납품 물량 감소·단가 인하 채산성 악화

휴·폐업 고려 … 지역경제 큰 타격 우려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기업 납품물량이 급감한데다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광주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협력업체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적자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적자업체들은 향후 인력감축이나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광주지역내 대기업 협력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72.5%가 '적자경영'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흑자경영'이라고 답한 업체는 11%에 불과했다.

응답 협력업체는 삼성광주전자 38곳, 기아차 광주공장 27곳, 대우일렉트로닉스 17곳, 기타 21곳이었다.

이들 협력업체들이 적자경영을 호소하는 이유로는 대기업 납품물량 감소(56.1%)가 가장 많았고 납품단가 인하(51.5%), 불합리한 원가산정(28.8%), 금융비용 과다(27.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 하남산단내 A사 대표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매년 상승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산정과정에서 10년전 기준으로 임율(시간당 노무비)을 적용,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다른 B사 관계자는 "납품단가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해 협력업체들이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응답업체들은 ▲인력감축(51.5%) ▲품질·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25.8%) ▲휴·폐업 고려(22.7%) 등을 꼽아 적자경영이 장기화될 경우 실업 도미노 파장마저 예상된다.

협력업체들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반기에 비해 자금사정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4.5%, '좀 심각하다'는 57.8%로 전체의 92.3%가 자금난을 호소했다.

향후 경영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재와 비슷할 것'(58.4%), '현재보다 더 어려울 것'(25.9%)이라는 응답이 84.3%로 '현재보다 나아질 것'(15.7%)이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강영태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정부가 납품단가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협동조합에 위임할 경우 협력업체의 87.8%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면서 "대중소기업의 관계가 갈등이 아닌 상생협력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납품단가의 적정이윤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유종근 대주그룹 회장과 6개 대학 총장들이 10일 광주시 동구 대주그룹 본사 13층 회의실에서 '지역대학 우선채용 협약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병선 목포대 총장, 신철호 목포해양대 총장, 장만채 순천대 총장, 유종근 대주그룹 회장, 김윤수 전남대 총장을 대신한 황태주 대학원장, 전호종 조선대 총장, 장병완 호남대 총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주그룹 "지역 인재 우선 뽑겠다"

전남대 등 6개 대학 총장 들과 협약

대주그룹(회장 유종근)이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대주그룹은 10일 본사 13층 회의실에서 전남대·조선대·호남대·목포대·순천대·목포해양대 등 광주·전남지역 6개 대학과 대학 졸업생의 우선 채용 및 취업활동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고용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종근 대주그룹 회장과 각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대주그룹은 내년부터 신규인력 채용시 전체 모집인원의 70%를 이들 대학 출신으로 충원할 방침이다.

또 취업관련 정보제공과 취업설명회 개최 등 취업지원 활동을 대학과 공동으로 펼쳐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광주·전남지역 고용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종근 대주그룹 회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기업으로서 지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호종 조선대 총장은 "지역인재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주그룹이 지역대학과 고용협약을 체결,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1981년 대주건설을 모태로 출발한 대주그룹은 대한조선·대한시멘트 등 10개 계열사를 거느린 중견그룹으로, 연매출 2조원 보유자산 4조원(지난해 말 기준)을 기록, 광주·전남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지역 제조업 경기둔화 심화

3분기 산업생산 4.2% 감소 … 재고는 21% 급증

올 들어 광주지역 제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재고는 급증세를 보이는 등 경기 둔화세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제조업 생산은 늘었지만 재고 물량도 대책없이 쌓이고 있어 제조업계가 발을 구르고 있다.

10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3·4분기 광주·전남 경제동향'에 따르면 3·4분기 광주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3·4분기에 비해 4.2% 줄었다.

광주의 생산 감소는 주력인 자동차 생산이 1년새 18.5% 줄어든 데다 고무·플라스틱(-4.8), 담배(-4.4) 등의 생산이 동반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는 또 제조업계의 생산감소 속에서도 재고는 되레 급증하는 등 내수 및 수출 위축 등 경기 둔화세가 뚜렷했다. 3·4분기 광주는 자동차와 타이어, 기계·전기 장비 부문의 재고가 급증해 총 재고량이 1년 전보다 20.6%나 늘었다.

이같은 상황은 전남의 경우도 비슷하다. 전남은 3·4분기 산업생산이 1년 전에 비해 8.4% 늘었지만 재고도 8.7%나 증가했다. 내수 둔화와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재고량이 생산 증가폭을 넘어선 것이다.

부문별로도 주력인 화학 부문의 재고가 21.1%나 늘어난 가운데 콘크리트 전주 등 비금속광물과 전구 등 전기장비의 재고가 각각 34.9, 32.8%나 증가했다.

건설경기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다. 3·4분기 광주의 건축허가 면적은 50만7천㎡로, 1년 전보다 44.6%나 줄었다. 전남도 건축허가 면적이 103만3천㎡로 1년새 21.6% 급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포스코 무사고 철도운송 조업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운송기관차 운전자들이 지난 6일 무사고 철도 운송조업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0월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기관차 운행시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자들의 운전기능 향상을 위해 기관차 운전 경진대회를 펼쳤다. 〈광양제철소 제공〉

수혜자 만족도 조사

광주테크노파크 1위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남헌일·사진)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전국 16개 테크노파크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테크노파크는 최근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16개 테크노파크와 관련이 있는 기업·대학·연구소 등 1천736명의 수혜자들이 참여해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이용, 창업보육, 장비활용, 경영지원, 네트워킹 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했다. 조사결과 광주테크노파크는 88.2점을 얻어 16개 전체 테크노파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모든 부분 만족도에서 전국 평균(80.5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종태기자 jtlee@

여수 YS중공업 올 매출 100억 돌파

선박 수리사업 급신장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위치한 YS중공업(대표 오이수)이 올해 선박 수리사업부문에서 매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YS중공업은 올해 매출목표를 81억원으로 계획했으나, 지난달 이미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영민 YS중공업 수리사업본부장은 "지난달 말까지 올해 매출실적을 27억원이나 초과 달성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매출총액이 12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해운과 조선업계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출을 초과달성한 것은 YS중공업의 높은 기술수준을 증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YS중공업은 지난 2004년 신영조선공업을 인수한 대한조선이 올해 초 이름을 바꾼 중소형 조선소로, 1만DWT급 다목적운반선(MPC)을 주력 생산하는 신조사업과 수리선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내달부터 기초생활자 연체 이자 감면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금융권 연체 이자가 감면되고 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등 '빚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오병균)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연체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채무 상환이 유예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최근 1개월내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갖고 캠코 광주전남지사 등 전국 9개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내년 4월30일까지로, 신청 후 3주일 내에 채무조정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일반 연체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채무재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는 1천만원 이하 채무자가 대상이며, 내년에는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